

# 5 게으름과 작별을!

## Chapter

잠 6:6~11, 잠 26:13~16  
찬송가 37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찬양 69장 (맑고 밝은 날)

### 오늘 배울



### 말씀

1.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름에 익숙한 것은 책망받을 죄임을 압니다.
2. 게으름과 작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실행합니다.

### 마음 열기

마지막 칸을 채워서 이야기를 완성해 보세요.





## 말씀을 이해하기

게으름이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알면서도 그 행할 시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내 주변의 영혼을 전도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다면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세상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반면에 그 모든 사실과 복음을 알고,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까지도 잘 알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종들을 모아 놓고 칭찬과 책망을 하실 때 대표적인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치 못하는 것과, 알면서도 행할 시기를 미루는 게으름은 주님께 책망을 대표적인 죄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일에 이유를 잘 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 모든 이유는 핑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이 모두 이루어 놓은 사실을 전하는 수고만 하는 것이며, 이것을 미루는 어떤 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게으름의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게으름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입니다.

## 공과말씀정리

##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 22:29)

Do you see a man who excels in his work? He will stand before kings; He will not stand before unknown men (Pr 22:29)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잠 10:4~5)

(잠 24:30~34)

(살후 3:6~12)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창세기 31장 38~42절을 읽고 다음에 답해 봅시다.

1. 믿음의 조상들이 하던 일 중에 양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2. 야곱은 20년 전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된 비결을 38~40절의 그의 고백에서 찾아서 요약해 봅시다.
3.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값을 열 번이나 변역하였음에도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에서 찾아보세요.
4.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 축복을 내려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던 게으른 습관이 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마음을 두고 듣지 않으면...



듣기는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을 때에 마음을 두고 듣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내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 17:11)

## 존 웨슬리(John Wesley)의 교훈

기독교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인물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 179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기 5일 전까지도 32km 떨어진 곳으로 전도하러 다녔고, 6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평생 2~4시간 가량의 설교를 4,000번이 넘게 했고, 200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지구를 10바퀴 돌고 남을만한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건강을 허락하신 탓도 있지만, 그 자신이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사용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이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물론 그의 기준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만나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가 살았던 시대가 연회를 즐기던 사교의 시대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향락과 사교에서 말미암는 인생의 낭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내 생애의 많은 시간을 쓸모 없는 대화와 세속적인 일에 빠져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